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박 철우(나사렛대) 시편 4-5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 원칙 및 유용성 연구	108
본고의 목적은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번역의 특징을 고찰하여 우리말 성경에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경 주석을 위한 불가타 연구의 유용성을 타진해 보고 자 하는 것이다. 히에로니무스의 시편 4-5편의 문학분석을 통하여 그 번역의 특징을 관 찰하였고, 우리가 유념해야할 여러 가지 성경번역상의 원칙들을 검토하였다.	
Park, Cheol-Woo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Particularities of the Translation of Vulgate on the Basis of the Rhetorical Analysis of Ps 4-5	108

시 4-5편의 수사학적 분석과 불가타 성경의 번역 원칙 및 유용성 연구

박 철우 | 나사렛대

1. 서론

1) 논문의 목적과 범위

불가타는 성경 해석과 번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불가타 시 4-5편을 표본 본문으로 하여 이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히에로니무스의 번역상의 원칙과 특징을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성경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면모를 살펴보고, 이를 주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¹⁾ 본 논문의 전개 방식은 절별 분석의 순서를 따르며, 주로 각 히브리어 본문(MT)과 70인역, PG (Psalterium Gallicanum 갈리칸 시편), PH (Psalterium iuxta Hebraeos 히브리시편)을 비교 검토하며, Nova Vulgata(노바 불가타)를 참조하여 히에로니무스의 번역 시편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과 번역상의 특징들을 검토하였다.

1) 이 논문은 시편 1-3편의 분석을 통하여 검토된 필자의 논지를 재확인하는 후속 논문이다: 박 철우, "시편 1-3의 본문 분석을 통해 살펴본 불가타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2009년 4월), 34-53쪽.

2)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 번역의 목적과 약사(略史)

히에로니무스는 고대의 가장 위대한 성서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크로아티아(Croatia)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스트리돈(Stridon)이라는 곳에서 340년대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²⁾ 그의 부모는 기독교도였다. 그는 성인이 된 후까지(사람에 따라서는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세례를 연기하는 4세기의 일반적 경향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비 신자 교육(catechumen)에 참석하였고, 기독교도였다.³⁾ 그는 스트리돈에서 대략 6/7세에서 11/12세에게 행해지는 초등학교 수업(ludus litterarius)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유세비우스(Eusebius)는 11/12세에 시작되는 중학교 과정을 교육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로마로 보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학교 선생인 도나투스(A. Donatus)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때 로마에서 기초적인 헬라어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그리고 그는 15/16세 경에 도나투스의 문법 학교를 마치고 당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처럼 수사학 학교, 곧 우리의 대학교 학부 과정 정도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매우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대도시 로마의 쾌락적인 삶도 경험하였다. 아마 성적인 모험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후일 이것을 증오하였고 참회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기독교도임을 잊지 않았다.⁵⁾

369-370년경에 그 당시 문화와 정치의 또 다른 중심지로서, 고을(Gaul)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트리어(Trier)에 가서 머물렀으며, 다시 알프스를 넘어 동쪽으로 돌아와 아퀼레이아(Aquileia)와 스트리돈에서 한 동안 지낸 다음, 372년 동방으로 떠났다. 그는 아퀼레이아에 있

2) P. Nautin, "Hieronymus",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Vol. 15, (Berlin: Walter de Gruyter, 1986), 304-315쪽; A. Kamesar, *Jerome, Greek scholarship, and the Hebrew Bible: a study of the Quaestiones hebraicae in Genesi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1쪽; J. N. D. Kelly는 331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학자들이 340년대를 가정한다. 참조 J. N. D. Kelly,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5); 어느 연대도 결정적이진 못하다. Stridon은 Dalmatia의 한 지역으로 Pannonia의 접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에 관해서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3) J. N. D. Kelly, *위글*, 7쪽.

4) *위글*, 14쪽.

5) *위글*, 19-24쪽.

는 동안 금욕적 은둔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동방 수도원 운동의 중심지들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려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그 당시 동방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그의 헬라이어 지식을 심화하였고, 374년에 안디옥의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인 칼키스(Chalcis)에서 은둔자의 생활, 곧 금욕적 고행의 삶을 살았다. 기도와 참회의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에 대한 묵상과 신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이 때 그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한 유대인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⁶⁾ 그는 376/377년에 사막에서 떠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 기간 중 이곳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 관심과 이상은 수도원 생활이었고 금욕적 은둔자의 삶이었다. 그는 그의 금욕 생활을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파울리누스(Paulinus)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는 금욕적 고행의 삶에 대한 열망으로 한동안 칼키스의 사막으로 가서 지냈고, 379(또는 380)년에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로 갔다. 그곳에서 나지안젠(G. Nazianzen)의 지도 아래 성경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곳에서 약 2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곳에서 헬라이어 교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의 최초의 번역이 유세비우스(Eusebius: d. c. 340)의 Chronicaon(연대기)이며, 언어에 대한 그의 공부는 계속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380년경에 그가 번역한 유세비우스의 Chronicaon의 머리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⁷⁾

그는 382년에 로마로 가게 되었고, 교황 다마스스(Damasus)1세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교황 다마스스는 그에게 Old Latin version(라틴어 구역)을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Old Latin version은 2세기경 헬라이어 성경(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 책은 아프리카와 서유럽에서 사용되었는데, 4세기경 이 성경은 거의 책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황 다마스스는 성경 내용의 통일을 위하여 70인역을 바탕으로 성경을 개정하기를 원했으며, 이 일을 히에로니무스에게 맡겼다. 히에로니무스는 헬라이어 사본을 바탕으로 네 복음서만을 개정하였고, 이것을 384년에 교황 다마스스에게 건네었다. 그 때 그는 70인

6) 윌글, 46-56쪽; J. H. D. Scourfield, *JThS* 37(1986), 117-121쪽.

7) A. Kamesar, 윌글, 41쪽.

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편(Roman Psalter)도 개정하였다. 로마에서 그는 은둔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로마 귀족의 과부였던 마르셀라(Marcella)와 파울라(Paula), 그리고 파울라의 딸인 유스토키움(Eustochium)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나머지 생애 동안 히에로니무스를 신앙적 멘토로서 따랐으며, 그를 재정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384년 11월 11일 교황 다미수스(Damasus) 1세의 서거 후, 그는 385년 로마를 떠나게 된다.

385년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이때 그의 동생 파울리니아누스(Paulinianus)와 몇몇 그의 친구들이 그와 동행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파울라와 유스토키움도 그를 따라왔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성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갈릴리를 순례하였고, 이어서 금욕 생활의 위대한 영웅들의 거점인 이집트로 내려갔다. 히에로니무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에서 디뮬무스(Didymus the Blind)로부터 예언자 호세아에 관한 강론을 들었고, 안토니우스(Anthony the Great)에 대한 그의 회상을 들었다.

그리고 386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파울라는 이곳에 남자들이 거주하는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을 건축하였다. 이 두 수도원이 파울라, 유스토키움, 그리고 히에로니무스의 나머지 생애 동안 살았던 곳이다. 그들은 각각 404, 419, 420년에 소천한다. 베들레헴에서 그는 히브리어 지식을 더욱 넓혀 나갔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다. 그가 때때로 방문하였던 곳이 그 당시 팔레스티나의 교회 행정적 중심지였던 가이사랴(Caesarea)였다. 이곳에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 오리겐(Origen)의 헥사플라(Hexapla) 원본이 있었다.⁸⁾ 그는 389년에 전도서의 주석을 완성하였다. 그는 이 주석에서 그와 함께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던 유대인으로부터 얻게 된 동시대의 랍비 주석을 폭넓게 사용하였다.⁹⁾ 히브리 자료와 랍비 주석의 사용은 그의 *Quaestiones hebraicae*(창세기의 히브리어 문제들/Hebrew Questions on Genesis)에

8) J. N. D. Kelly, *윗글*, 134-135쪽.

9) *윗글*, 150쪽.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도서 주석에서, 아직 히브리어와 결정적 차이가 없는 한, 익숙해 있던 70인역의 표현을 선택하곤 하였던 것과는 달리, Quaestiones hebraicae의 경우 본격적으로 Hebraica veritas(히브리 본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하였다.¹⁰⁾

그러나 그 이전의 그 어떤 저술보다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의 공헌은 이제 시작된다. 그는 우선 70인역을 바탕으로 번역된 라틴 성경을 개정하려 하였다. 이 작업은 라틴 성경을, 다른 헬리어 사본들과 히브리어 사본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비평적 방법이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오리겐의 헥사플라에는 이 모든 사본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섯 번째 단(column)에는 히브리 성경과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70인역의 비평본이 담겨 있었다. 그는 386-392년경에 이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가 시도한 첫 번째 책이 시편이었다. 그는 이미 로마에서 Old Latin Psalter의 개정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오리겐의 더 과학적인 본문의 발견과 자신의 비평 능력의 향상은 로마에서 시도한 그의 라틴어 성경 개정 작업의 한계를 확실히 깨닫게 하였다.

이 두 번째 시편은 고을(Gaul)에 소개되어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그 이름도 Gallican Psalter (Psalterium Gallicanum, PG)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시편은 그가 나중에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한 시편보다 더 교회가 선호하는 책이 되었고, 불가타(Vulgata)와 일과 기도서(Roman Breviary)의 시편이 되었다. 동일한 원칙과 목적으로 율기와 역대 상하와 잠언, 전도서와 아가의 라틴어 판을 개정하였으나, 시편과 율기와 아가만이 현존해 있다.¹¹⁾

390년경부터 그는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이 작업은 많은 저항과 비판을 야기하는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호교적 차원에서든 필요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그릇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기독교를 조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과 조소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은, 그들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이 때 비로소 설득력 있게 그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다

10) 윗글, 156쪽.

11) 윗글, 158-159쪽.

고 확신하였다.¹²⁾ 그는 사무엘과 열왕기를 먼저 번역하였고, 이어서 시편과 예언서들과 욥기를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 라틴어 번역 시편을 *Psalterium iuxta Hebraeos* (PH)라고 불렀다. 이 책들의 번역은 이미 394년 이전에 완성되었고, 나머지 책들에 대한 그의 번역은 405년에 완성되었다.

382-385년경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 그의 히브리어 지식은 강화되었으며, 성경 연구를 위해서 히브리 본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미 380년경에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시온이 70인역의 원문과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로 인하여,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히브리 원문의 중요성에 관한 그의 이해와 원칙은 오리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리겐은 자신의 70인역 본문 연구에서, 헬라어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히브리 본문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직접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존의 라틴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거친 중역(重譯)이었다. 그는 나중에, 신약의 라틴어 번역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루어졌다면, 구약의 라틴어 번역도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것은 70인역이 표준 성경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생각이었다.¹⁵⁾ 물론 그 당시 라틴 저자들도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 다음 중요한 요소는 헬라어 번역이나 라틴어 번역에 히브리 성경의 문체들이 너무 조약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이 문체와 관련해서, 고대 저자들도 이미 히브리 시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필로와 요세푸스는 히브리 시가 운율(metre)로 되어있음을 지적하였고, 오리겐도 히브리 문장들이 본래의 히브리 원문에는 훌륭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일부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던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12) 윗글, 160쪽.

13) A. Kamesar, 윗글, 44쪽.

14) 윗글, 46쪽.

15) 윗글, 55쪽.

원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문학성을 라틴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그가 히브리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요 이유였다. 물론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도 헤사플라 70인역을 바탕으로 한 라틴어 성경 개정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는 이러한 작업도 히브리 원문을 살리는 그의 작업의 일환으로 보았던 것이다.¹⁶⁾

따라서 히에로니무스 번역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70인역과 그의 헤사플라 70인역을 바탕으로 한 Psalterium Gallicanum (PG)과 그의 히브리 성서 번역본인 Psalterium iuxta Hebraeos (PH)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2. 본문 분석

1) 시편 4편의 분석

PG는 1절의 מְנַחֵם(라므나쎄아흐)를 종말을 가리키는 εἰς τὸ τέλος (for the end)로 번역하고 있는 70인역을 따라서¹⁷⁾ in finem으로 번역한 데 반해, PH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아킬라, 테오도시온, 심마쿠스를 따라 이 단어의 아람어(ܡܢܚܡ) 의미인 victorious, pre-eminent로 해석하여 מְנַחֵם을 victori로 번역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For the victor (victorious) 곧 '승리자', '메시아'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부분의 역본들은 이 단어를 성전에서의 찬양과 연결하여 '지휘자'라는 의미로 번역한다(מְנַחֵם의 Piel part. overseer, superintendent, director; cf. 대상 15: 22; 합 3: 19). 이 해석이 시편의 삶의 자리라는 관점에서 잘 부합되는 이해이다. 그러나 전자의 가능성도 부정될 수 없다.

PG는 70인역의 ἐν ψαλμοῖς ᾠδῆ τῷ Δαυὶδ를 in carminibus psalmus david로 번역하고 있다. 이 번역은 PH의 번역과 대동소이하다(in psalmis [בְּנִינֹת] canticum david). מוֹדָן מְנַחֵם는 music 자체 또는

16) 일부 학자들이 히에로니무스가 390년경 즉 히브리 성경을 직접 번역하기 전에 70인역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개정을 중시하였고, 이어서 히브리 성경을 직접 번역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Kamesar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 즉 히에로니무스는 이 개정을 계속하였고, 이것은 그 헬라 전통을 중요시한 그 시대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히브리 번역을 수행하려는 그의 정책 때문이었다고 본다(Adam Kamesar, *위글*, 49-58쪽). 설득력 있는 전개이다.

17) BDB는 70인역이 이것을 מְנַחֵם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한다(BDB. 664쪽).

song를 나타내는 단어 **תִּנְיָנִים**의 복수로서, 동일한 의미인 음악 또는 노래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תִּנְיָנִים**)는 동사 **גָּגַג**(touch [strings], play a stringed instrument)에서 유래된 말로서, NASB, RSV, NRSV, NIV처럼 with stringed instruments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절에서 70인역은 **אֲקִרְאֶה**(브코르이, 전치사 + 부정사 연계형 + 1인칭 단수)를 *ἐν τῷ ἐπικαλεῖσθαι με*로 번역한다(when I called upon [him], [the God of my righteousness heard me]). 70인역은 이 문장을 과거의 사건(체험)으로 이해한다. PG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여, Cum invocarem (When I called) exaudivit me (he answered me) Deus iustitiae meae (God of my righteousness)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MT의 **אָנָה**(아네니), 즉 **אָנָה**의 Qal 명령형 + 1인칭 단수'와 다른 것으로, 히브리어 **אָנָה**(아나니)의 번역이다(70인역, *ἐλοήκουσέ μου* [heard me]; PG [exaudivit me]).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אָנָה**(아네니, MT)를 그대로 번역하여, exaudi me (간구 [명령형])라고 번역한다. 현대의 역본들도 대개 이렇게 번역한다 (Answer me [ASV, NASB, RSV, NRSV] 또는 Hear me [KJV, NKJV]). 그리고 **אֲקִרְאֶה**(브코르이)를 “When I call” (ASV, NASB, KJV, NKJV, RSV, NRSV), “When I call to you” (NIV)로 번역한다. 이 **אֲקִרְאֶה**(브코르이)를 히에로니무스는 탈격 분사형으로 번역한다 (invocante me [when I call; in my calling; to my calling]). 일부 고대 불가타 사본들은 invocante의 대격인 inuocantem me (CISKΘ), 또는 inuocantem (S), 즉 to my calling의 의미로 해석한다.¹⁸⁾ 무엇이 히에로니무스 자신의 표현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의미상 큰 차이도 없다.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히에로니무스가 이 문장을 간구(명령형)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며, 본문에 충실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 **הִרְחִיבָהּ**(히르합타, **הִרְחִיב**의 Hiphil 완료 2인칭 남성 단수)를 dilatasti로 번역한다. 이것은 동사 **רָחַב**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다(합성어의 의미를 강화하는 강제 접두어 dis + 넓은[latus]). ‘내 고난 중에 나를 위하여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큰

18) 참조 apparatus criticus, *Biblia Sacra Vulgata* vol. I, 773쪽.

길을 내주소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RSV와 NRSV가 이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O God of my right! Thou hast given me room when I was in distress). 이것은 히에로니무스의 어휘 선택에 있어서의 신중성과 섬세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3절에서, **יְהוָה קָ**(케보디)를 *incliti mei*라고 번역한다. 이는 *in+clueo* (-로 불리다, -로 소문이 나다)의 합성어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름난'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inclitus*가 명사로 쓰여 '나의 영광, 나의 영예, 나의 평판' 등을 의미한다. **יְהוָה קָ**를 70인역에서는 *βαρυκάρδιου* (**כָּבֵד יָ** heavy of heart, slow of heart¹⁹⁾)로 번역하고, PG는 이것을 따라 *gravi corde* (with a heavy heart)로 번역한다. **לְקַלְמָה**(리클림마, **מִשְׁכָּח**[모욕, 수욕, 수치, 불명예])를 부사(*ignominiose*)로 번역한다. 그리고 *diligistis vanitatem* 다음에 오는 **תְּבַקְשׁוּ קִנְיָן**(테바크슈 카잠)을 분사형 *quarentes mendacium* [those who seek for falsehood]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2인칭 복수 동사로 처리한 PG와는 다르다(*quaeritis*). PG의 경우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접속사 *et* (70인역 *καί*)를 첨가함으로써 이것을 동사로 연결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히브리 본문에는 접속사가 없으므로 PH에서 이것을 분사형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히브리 본문에 대한 그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절을 소리내어 낭독하면 PG의 *quaeritis* [*mendacium*]보다, 음소 *n*을 가지고 있는 *querentes*가 음소 'n + m'을 내포하고 있는 두 단어(*vanitatem*과 *mendacium*)를 음성학적으로 연결하며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표출한다. 이러한 음성학적 요소도 성경 번역 특히시의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절에서 히브리어 **יָדַע**(테우/알라)를 PG에서는 동사 *scio*를 사용한 데 반해, PH는 *cognosco*를 사용한다. 히브리어의 **יָדַע**는 경험적 차원에서의 '안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cognosco*는 *scio*보다 이러한 경험적 의미를 더 강조하는 말로서, 70인역에서 히브리어의 **יָדַע**를 번역하는 데 주로 사용한 *γινώσκω*를 반영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고유한 의미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적합한 어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19) BHS apparatus criticus(=비평주) 참조.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הִפְלִיחַ (הִפְלִיחַ 의 Hiphil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set apart)를 מִרְאֵה (miracle)²⁰)로 이해하여 mirabilem reddidit으로 번역하였다. 70인역과 많은 사본들과 타르굼이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²¹) PG는 이것을 mirificavit (기묘하게 하다, 놀랍게 하다)로 번역하고 있으나, ‘반복’의 접두어 re + dare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반복성이 강조되는 PH의 표현이 더 선명하다는 느낌을 준다(et cognoscite quoniam mirabilem reddidit Dominus sanctum suum: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자[자기에게 헌신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아라).

5절의 서두에 나오는 וַיִּזְכֹּר (리그주)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BHS는 앞에 부정어인 לֹא (알)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나,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 특별한 근거는 없다. 70인역, PG, PH 모두 ‘분노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분노하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irascimini et nolite peccare]).²²) RSV, NKJV, NIV도 이와 같이 이해한다.²³) 개역성경은 내용 전달에 다소 문제가 있다(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PH는 5절b도 히브리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번역한다(loquimini in cordibus vestris super cubilia vestra et tacete [NRSV, “ponder it on your beds, and be silent”]). Nova Vulgata도 PH의 번역과 유사함을 보여준다(Irascimini et nolite peccare; loquimini in cordibus vestris, in cubilibus vestris et conquiescite).

그러나 PG는 70인역을 따라, ‘너희가 침대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말한 것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 하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quae dicitis in cordibus vestris in cubilibus vestris compungimini [“feel compunction upon your beds for what ye say in your hearts”]²⁴)). 그러나 이것은 MT와는 많은 차이가 나는 번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PH의 번역은 히브리 본문에 대한 히에로니무스의 충실성을 잘 보여준다.

6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וַיִּפְרֹץ (비트후)를 PG(sperate)에서와는 달리,

20) BHS apparatus criticus 참조.

21) 시 31: 21; 17: 7.

22) 엡 4장 26절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한다.

23) NBE (“Tiemblen, no pequen...”); TOB (“Frémissez et ne péchez pas”).

24) L.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700쪽.

fidite로 번역한다. 그는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 fidere (시 4: 6; 37: 3, etc.), sperare (시 13: 6; 28: 7; 31: 7, 15; 32: 10, 21, etc.), 또는 confidere (시 9: 11; 21: 8; 22: 5-6; 25: 1; 26: 1; 27: 3, etc.)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한다. PH에서는 70인역과 PG에서처럼 MT의 시 4편 7a 절(וְאֵלֶּיךָ יְיָ מִן אֲמָרִים אֲמַרְתָּ)를 6절에 연결하여 읽는다. 히에로니무스는 וְאֵלֶּיךָ יְיָ를 quis ostendit nobis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 주셨는가)라고 번역한다. 여기서 특히 וְאֵלֶּיךָ(הָאֵל)의 Hiphil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 1인칭 복수 대명사 접미어)를, PG (미래형 ostendet [70인역, 미래형 δεῖξει [Who] will show])와는 달리, 완료형인 ostendit (showed)로 번역한다.²⁵⁾ 이것은 이례적 번역이다. 물론 히브리어 미완료가 과거 시제로 번역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²⁶⁾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서의 내용을 그 다음 절들과 연결하여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MT의 7절b-9절(개역의 6b-8절)의 내용을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것일 것이다. 즉 MT의 7절b-9절(개역, 6b-8절)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한 것이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이미 기쁨을 주셨나이다"(MT 7b절(개역 6b절)).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증거하십시오!(MT 9절(개역 8절)).' 이것은 본문의 상황에 대한 섬세한 관찰을 통해 가능한 번역이다. 이 번역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용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고려는 번역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히에로니무스는 MT의 7b절(וְאֵלֶּיךָ יְיָ מִן אֲמָרִים אֲמַרְתָּ)과 8a절을 한 절(PH의 7절)로 묶어서 이해한다. 그리고 MT의 8b절(그들의 과일과 포도가 제때에 풍성한 소출을 낸다)도 MT 7a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 곧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 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한 것 같다. 이것은 MT의 9절의 내용과도 문맥이 잘 통하는 해석이다.

25) C. A. Briggs, *Psalms*, "Oh that He would shew us prosperity," p. 29; TOB, "Qui nous fera voir le bonheur?"; NBE, "Quién podrá darnos la dicha, si la luz de tu rostro ha huido de nosotros?"; A.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vol. I (Grand Rapids: Eerdmans, 1972), 79쪽("Oh that we might see some good").

26) E. Kautzsch, revised by A. E. Cowley,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80), 314쪽.

히에로니무스는 7b절(MT, הַיְהוָה יִפְתֹּחַ לָנוּ אֹרֶךְ יָמֵינוּ)에서 הַיְהוָה를 **אֹרֶךְ**의 Qal 명령형 단수로 이해하여 lift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서 70인역과 PG는 각각 ἐσημειώθη [has been manifested], signatum est로 이해한다. 그러나 **אֹרֶךְ**로 읽는 다른 히브리 사본이 있으며,²⁷⁾ 현대의 대부분의 역본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ASV, NASB, RSV, NRSV, KJV, NKJV, etc).²⁸⁾

7절에서 PG는 70인역의 φῶς (히브리어 **אֹרֶךְ**)를 lumen으로 번역하며, PH는 lucem (lux)로 번역한다. 이 두 단어 사이에 내용상 주목할 만한 차이는 없다.²⁹⁾ 그리고 MT의 7b절을 7a절과는 별도의 문장으로 이해한다. PG와 PH는 MT의 8b절을 독립 절(PG와 PH의 8절)로 다룬다(PG 8절, a fructu frumenti et vini et olei sui multiplicati sunt.³⁰⁾ PH 8절, in tempore frumentum et vinum eorum multiplicata sunt).

PG는 70인역을 따라, ἀπὸ καρπού를 문자 그대로 a fructu (from the fruit 또는 with the fruit)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이것은 히브리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다(MT, **מֵעַתָּה** beyond the time 또는 from the time).

PH는 히브리어 **מֵעַתָּה**(메에트)를 in tempore [frumentum et vinum eorum multiplicata sunt]로 번역한다(in time [their corn and wine have been multiplied]). multiplicata는 중성 복수 명사 frumentum과 vinum과 성, 수, 격의 일치를 보여준다. PG와는 달리 frumentum et vinum eorum (corn and wine)이 주어이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olei도 없다. 따라서 PH가 히브리어 본문에 가깝다. 그러나 **מֵעַתָּה**의 사전적 의미는 beyond the time이다. 그러나 히브리 전치사 **מ**는 ‘뭘모호라트’(ממחרת on the morrow, on the next day; cf. 창 19: 34)의 경우처럼

27) BHS, 1089쪽.

28) 그러나, A. A. Anderson은 הַיְהוָה (has fled [from הַיְהוָה]로 읽고(*Psalms 1-72*, 80쪽; cf. NEB), J. H. Kraus는 הַיְהוָה ([from הַיְהוָה, set out, journey] “Gewichen ist von uns...” [has departed from us])로 읽는다(*Psalmen 1-59*, BK, 166쪽).

29) *Oxford Latin Dictionary*, 1050, 1053-1054쪽; 이것도 세번역으로서의 신선함을 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30) Lancelot C. L. Brenton, 700쪽(“They have been satisfied with the fruit of their corn and wine and oil”).

‘on’ (at)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³¹⁾

Briggs는 8절(MT의 8b절)을 7절(MT의 7b-8a절)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מִמֶּנִּי 를 from the time of로 해석한다.³²⁾ 이것이 히브리어의 보편적 이해이다. 히에로니무스도 8절을 7절과 연결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in tempore 대신 더 보편적인 a tempore로 번역했을 것이다. 이것이 더 쉬운 번역이다. 그러나 그는 in tempore를 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선 관찰할 수 있는 것이 8절과 7절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문장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히에로니무스가 מִמֶּנִּי 를 비교급 차원에서 앞의 7절과 연결하여 이해하였다면, 그는 당연히 a tempore (from the time)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굳이 in tempore로 번역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MT 7a절의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 주었는가”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시편 기자가 누리는 세 가지 독립된 은혜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1.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신 것(MT 8a절); 2. 제때에 곡식과 포도를 풍성케 하시는 것(MT 8b절); 3.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MT 9aa절, 이 경우 미완료). 그리고 마지막 절어(MT, 9aβb절)에서, quia tu Domine specialiter securum habitare fecisti me (“for you alone, LORD, made me dwell in safety”)라고 결론적 고백을 한다.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서 בְּיָמַי (בְּיָמַי 의 히필 미완료 남성 2인칭 단수 + 1인칭 단수 대명사 접미어)를 완료로 번역한다(cf. 70인역과 PG).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앞의 세 가지 은혜 모두에 대한 결론적 근거로 표현하기 위하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MT 8a절의 시체에 맞추어 완료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³³⁾ 히브리 성경 8절(70인역, 8절[PG와 PH의 9절])의 בְּיָמַי 를, PG는 70인역(ἐπὶ τὸ αὐτὸ)을 직역하여 in id ipsum (at the same time)으로 번역한 데 반해, PH는 simul로 히브리어에서처럼 한 악센트 단어로 간략하게 처

31) Ludwig Koehler/Walter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515쪽.

32) C. A. Briggs, *Psalms*, 32-36쪽; cf. H. J. Kraus, *Psalmen 1-59*, 166쪽; MT와 한글 성경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이 해석적 전통을 따른다(개역,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ASV, NASB, KJV, NKJV, RSV, NRSV, NIV, etc).

33) 그러나 이것은 별로 필요치 않은 시체의 전환이다. 굳이 이렇게 완료로 번역하지 않고 미완료를 그대로 살려 현재형으로 번역하여도 위의 축복의 근거를 표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리한다.

MT의 9절a(PG와 PH의 10절이며, 70인역의 8b절)의 בְּיָדָא 의 בְּיָדָא 는 isolation, separa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בְּיָדָא 와 בְּיָדָא 는 더 자주 alone 또는 solitarily의 의미로 사용된다.³⁴⁾ 이것은 70인역의 $\kappa\alpha\tau\acute{\alpha}\ \mu\acute{o}\nu\alpha\varsigma$ ³⁵⁾에 나타나 있는 의미이며, 일부 히브리 사본들에서는 이것을 בְּיָדָא 로 읽는다. 이 양자의 의미는 대동소이하다(홀로, 혼자서). 둘 다 동일한 어근 בָּדַד (be separate, isolated)에서 파생된 말이다. PG는 이것을 singulariter로 번역한다. 이 말은 alone, solitarily, in isolation의 의미도 있지만 specially (특별히, 각별히)라는 의미도 있다.³⁶⁾ 이 말은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영어 성경(alone 또는 only)이나 개역(오직)도 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이 말을 specialiter (특별히)라는 유사 단어를 사용하여 내용상의 변화를 주며 이를 표현한다.³⁷⁾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면서도 새 번역으로서 표현상의 신선함을 주기 위한 그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시편 5편의 분석

PG는 1절의 בְּיָדָא 를 70인역($\epsilon\iota\varsigma\ \tau\acute{o}\ \tau\acute{\epsilon}\lambda\omicron\varsigma$)을 따라, 종말의 의미로 번역한다(in finem [for the end]).³⁸⁾ 70인역의 $\text{ὕπερ τῆς κληρονομίου ἧς}$ 를 pro ea quae hereditatem (concerning her that inherits)로 번역한다. 그리고 $\text{פְּסַלְמוֹת דָּוִד}$ (psalm to David)를 consequitur psalmus david(the psalm following David; the psalm of David)이라고 번역한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בְּיָדָא 를 시 4편 1절에서처럼,

34) BDB, 94쪽.

35) BAG, 530쪽(alone, only).

36) "to an exceptional degree" (참조 singularis [peculiar, special, unique, that is alone in its class, etc]; *Oxford Latin Dictionary*, 1769쪽; singularis [único, solo, solitario, singular, excepcional, extraordinario]; singulariter [individual, aislada, extraordinariamente] (Don Vincente García de Diego, *Diccionario ilustrado: Latino-Español, Español-Latino*, (Barcelona: Bibliograf, 1973), 469쪽.

37) "in particular, specifically, individually" (참조 specialis [particular as opposed to general, specific, individual]; *Oxford Latin Dictionary*, 1799쪽); *Diccionario ilustrado: Latino-Español, Español-Latino*, 474쪽(specialis[especial, particular]; specialiter [especial, particularmente]).

38) BDB, 664쪽.

victori (for the victorious)로, אֶל־הֶחָיִלֹתָ를 pro hereditatibus (for inheritances)라고 번역한다. 여기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아킬라와 심마쿠스를 따라 κληροδοσιών(תְּהִלָּתָּה inheritances; תְּהִלָּתָּה hereditas의 복수형)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이것은 2개의 히브리 사본이 증거 하는 독본이다.³⁹⁾ 전체적으로 PG에서보다 간략하고 히브리 본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한다(victori pro hereditatibus canticum david).

2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אֶמְרֵי הָאֱלֹהִים[아마라이 하이지나 야훼])를 그대로 따르며 Verba mea audi Domine로 번역한다. 여기에서 그는 PG에서처럼 auribus percipe라고 하지 않은 것은 히브리어 동사가 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적 함축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audire가 auris (귀)를 통해 듣는다는 사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지나에 내포되어 있는 ‘귀’를 분리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어 בִּינְיָה를 intellego로 번역한 것도 적절하다. 또한 히브리어 הִגָּה(하가)를 meditabitur로 번역하였는데 이것도 ‘하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반영하는 어휘 선택이다.⁴⁰⁾ 히브리어 הִגָּה(하가)는 ‘roars, shout, cry out, sigh, think about, meditate, murmur’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며, 자주 consider, ponder의 의미로 나타난다(잠 15: 28; 24: 2; 시 19: 14; 77: 11f.; 143: 5).⁴¹⁾

더욱 탁월한 것은 הִגָּה(하기기)를 murmur meum으로 번역한 것이다. ‘하기기’의 어원은 הִגָּה(하가/murmur)이며, 이것은 앞의 אָמַר(2a절)와 시적 병행을 이루며, 뒤에 나오는 שׁוֹעַ קוֹל שׁוֹעַ(3절, the voice of my cry)와 내용상 연결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문맥상 가장 적합하다. 히에로니무스는 PG에서 clamor (clamorem meum)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양자 모두 가능한 번역이다. 표준새번역은 אָמַר(2a절)와의 병행을 감안하여 ‘하소연’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שׁוֹעַ קוֹל שׁוֹעַ를 ‘탄식 소리’로 번역하여 히브리 본문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39) 참조 BHS (הנחל ת).

40) A. Negroitã/H. Ringgren, “הִגָּה hägâ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I, 321-324쪽;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vol. I, Koehler/Baumgartner, (Leiden: Brill, 2001), 237쪽.

41) A. Negroitã/H. Ringgren, “הִגָּה hägâh,” 321-323쪽 (A. Negroitã).

2b절(PH, PG의 2절)에서도 히브리 어순을 잘 살려서 히브리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chiasmus 구조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히브리 시의 특징을 잘 표출해 주고 있다(이것은 70인역에서도 볼 수 있다).⁴²⁾

PH의 3절에서 rex meus et Deus meus만이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과 70인역, 그리고 PG (intende voci orationis meae)에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 달라”는 간구가 나온다. 아마 히브리 사본상의 문제이거나 vulgata 사본상의 문제일 수 있다.

PH의 경우 intende voci orationis meae가 없으므로 quia te deprecor(히브리 성경의 3b절 אֶתְּפַלֵּלְךָ יְיָ אֱלֹהֵי־יְהוָה: PG, quoniam ad te orabo)를 3절(rex meus et Deus meus)과 연결하여 이해하며, 4b절(Domine mane audies vocem meam “주여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을 독립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사본상의 문제로 볼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PG의 개정이 더 적절하다.⁴³⁾

단지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PG가 πρὸς σὲ προσεύξομαι (MT, אֶתְּפַלֵּלְךָ יְיָ אֱלֹהֵי־יְהוָה)를 ad te orabo라고 번역하고, εἰσακούσῃ (אִשְׁמַע)를 exaudies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전자를 deprecor로 번역하였는데, deprecor가 히브리어의 כָּלַל(기도하다)이 내포하는 간절함을 더 잘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더 적절한 어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PG가 강세 접두어 ex가 붙어 있는 exaudio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강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히에로니무스는 audio가 ‘청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PH에서 אִשְׁמַע의 보편적 의미(to hear)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절(히브리 본문에서는 4b절)에서, PH는 בְּקֶרֶב אֲעַבְדְּךָ יְיָ וְאֶצְפָּא (보케르 에에라크 르카 바아짜페)를 mane praeparabor ad te et contemplantor라고 말한다. 이것은 히브리 본문의 직역이며 본문의 의미

42) PH: Verba mea audi domine (אֲמַרִי הָאֵן יְיָ יְהוָה)
intellege murmur meum (בִּינָה הַגִּינִי)

PG: Verba mea auribus percipe Domine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ἐνώτισαι Κύριε)
intellege clamorem meum (σύνες τῆς κραυγῆς μου).

43) 3. intende voci orationis meae
rex meus et Deus meus

4. quoniam ad te orabo Domine
mane exaudies vocem meam

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는 어휘 선택이다. praeparabor ad te의 번역은 Darby나 YLT, 또는 RSV가 적절하게 보인다.⁴⁴⁾ $\text{קָרַבְתִּי לְפָנֶיךָ}$ (에에라크 라크)를 주님을 위해 무언가 준비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재귀적 의미의 수동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응답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contemplabor*와도 음성학적으로 내용적으로 서로 병행적 조화를 이룬다(*praeparabor/contemplabor*).

히에로니무스는 이어서 히브리어 הִתְבַּחֵשׁ (아짜페)를 *contemplabor*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동사의 의미를 잘 살리는 어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הִתְבַּחֵשׁ , 둘러보다 지켜보다 감시하다 망보다). PG에는 단순히 *videbo*라고 되어있는 데 반하여, PH에서는 ‘짜파’(הִתְבַּחֵשׁ)가 가지고 있는 ‘진지하고 계속적으로 주시한다’는 의미를 살려 *contemplor*라고 표현하였다. 이 *contemplor*는 *cum + templum*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성전과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성전, 특히 짐을 치기 위하여 짐조를 주시하던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깊이 주시하며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따라서 이 문맥에 매우 적합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quoniam non es deus volens iniquitatem tu*).

PG와 PH의 6절은 히브리 성서 5b절($\text{וְעַתָּה יִשְׂרָאֵל}$)로부터 시작하여, 히브리 본문 6a절의 $\text{וְעַתָּה יִשְׂרָאֵל וְעַתָּה יִשְׂרָאֵל וְעַתָּה יִשְׂרָאֵל}$ (로 이트야쯔부 홀르림 르 네게드 에네카)와 병행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PH의 6절에서 이것($\text{וְעַתָּה יִשְׂרָאֵל וְעַתָּה יִשְׂרָאֵל וְעַתָּה יִשְׂרָאֵל}$)을 PG의 *permanebunt iniusti ante oculos tuos*와는 달리 번역한다. 그는 우선 *permanebunt*를 *stabunt*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PG의 *permanebunt*는 70인역의 직역(διαμενοῦσιν [shall continue])인데 반해,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 $\text{וְעַתָּה יִשְׂרָאֵל}$ (이트야쯔부)를 직역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

44) Darby, "Jehovah, in the morning shalt thou hear my voice; in the morning will I address myself to thee, and will look up"
 YLT, "Jehovah, at morning Thou hearest my voice, At morning I set in array for Thee, And I look out"
 RSV, "O LORD, in the morning thou dost hear my voice; in the morning I prepare a sacrifice for thee, and watch"

עַר(라아, 히브리 본문 5b절)를 iniqui로 번역하고 있다. 법정의 문맥을 반영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iniusti 대신에 일상의 모든 구체적 일들을 포함하는 악인이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쓰이는 iniqui가 더 히브리 본문에 가까운 표현이다.

7절에서 פָּאָל(포알레[MT 6b절])와 דּוֹבְרֵי(도브레[MT 7절])를 PG는 70인역을 따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로 번역하고 있는데,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의 분사를 그대로 살려 각각 operantes, loquentes라고 번역한다. 이것도 히에로니무스의 전형적인 번역 형태로서, 가급적 히브리 시의 시적 특징을 살리며 본문 구조를 살려 번역하려는 번역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8절의 히브리 어순(語順)대로 אֲנִי(봐아니)를 autem ego라고 하지 않고, 라틴어의 어법에 따라(헬라이어와 같음, ἐγὼ δὲ), ego autem으로 번역한다. 여기에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강조 용법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이렇게 ego autem으로 번역하는데 아무런 주저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히브리 어순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따른다. 반면에 70인역을 그대로 직역한 PG는 adorabo ad templum sanctum tuum in timore tuo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אֲשַׁתַּחֲוֶה(에슈타하베)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므로, אֵל(엘)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의 의미를 살려서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NRSV).⁴⁵⁾ 히에로니무스는 여기에 ad로 번역된 אֵל(엘)을 in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의 이해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는데,⁴⁶⁾ 이러한 시도는 현대 역본에서도 나타난다(NASB).⁴⁷⁾

9절에서, שׂוֹרְרֵי(쇼르라이)를 insidiatores meos라고 번역한다(시 5: 9; 27: 11; 54: 7; 56: 3; 59: 11).⁴⁸⁾ 이것은 PG의 inimicos (inimicus의 대격 복수형)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단어이다. inimicus는 반대나 부정을 나타내는 in + amicus (친구)의 합성어로서 '친구가 아닌 사람',

45) NRSV, "I will bow down toward your holy temple in awe of you"
 46) 일반적으로 in이 방향성을 나타낼 때(adverbiale loci [어디]로, 향해서)는 in + acc. 인데(in templum),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장소 안에서"를 의미하는 in + ablative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in templo).
 47) NASB, "At Your holy temple I will bow in reverence for You"
 48)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5번 나오는데,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모두 insidiator로 번역한다.

즉 ‘적’에서 파생된 말로, 우리말로 ‘적’이나 ‘원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כָּׁא**(오예브)를 inimicus로 번역한다(시 8: 3; 9: 4; 27: 2; 31: 9, etc). insidiator는 ‘암계자 음모자 복병’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insidiator (dep. intr. 암계를 꾸미다, 흉계를 꾸미다, 노리다)에서 나온 말이다.

וְשָׂרָר(쇼르라이)의 어근을 **וְשָׂרַר**(원수로 취급하다, 원수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וְשָׂרָר**(쇼르라이)를 **וְשָׂרַר**(슈르/watch stealthily, lie in wait, 호 13: 7; 렘 5: 26; 욥 33: 27)에서 파생된 말로 이해하여 insidiator라고 번역하였다. 동일한 어근의 단어(Akk. šāru [inimical, foe])가 엘 아마르나 텍스트에서 ‘원수, 적’의 의미로 사용되나,⁴⁹⁾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lie in wait라는 의미와 뉘앙스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כָּׁא**(오예브)와는 구별하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9절에서, 히에로니무스는 PG (in conspectu meo)와 달리, **וּפְנֵי**(르 파나이)를 ante faciem meam이라고 번역함으로써 6절에서의 in conspectu (**וּפְנֵי**)와 구별한 것도 매우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10절에서 PG는 **קִרְבָּם**(키르밤)을 cor eorum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PH는 **קִרְבָּם**을 interiora로 번역하여 **קִרְבָּם**(레밤)의 cor와 구별하고 있다. 히에로니무스는 **רֶמֶס**(렘[**רֶמֶס**])을 cor로 번역한다(참조 PH. 시 37: 9, 11). 이 또한 그가 보여주는 어휘 선정의 섬세성이다.

11절의 levificant는 levis의 동사형 어휘이다. 이것을 Nova Vulgata는 molliunt로 번역한다. 이것의 의미는 ‘허로 아첨한다(flatter)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히브리어 ‘할라크(**חַלַּק**)의 의미이다(호 10: 2). linguis suis dolose agebant (PG, with their tongues they acted deceitfully; 70인역, ταῖς γλώσσαις αὐτῶν ἐδολιούσαν)역시 가능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PH가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히브리 성경의 **הֵאֵשִׁימָם**(하아시멤)은 **אָשַׁם**(아삼)의 Hiphil 형으로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 ‘유죄를 선언하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히에로니무스는 이를 condemnare (유죄를 선고하다)로 번역한다.

יִפְלוּ(이플루)는 Qal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형(juss.)으로서 ‘떨어지

49) L. Koehler/W. 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Leiden: Brill, 2001), 1454쪽

게 하소서, 쓰러지게 하소서'를 의미한다. 가정법 3인칭 복수인 *decidant*는 가정법의 지시적 용법으로서 명령이나 권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히브리어의 *jussiv*와 같은 용법이다.⁵⁰⁾

11절(PH)에서 히에로니무스는 **שָׁטַח**(폐사)를 *scelus*로 번역한다. 이것은 '악한, 흉악한'을 의미한다. 위에 언급된 바 선민에 대한 흉악한 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또한 **מָרַו**(마루)를 PG의 *inritaverunt* 대신에 *provocaverunt*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앞의 의미를 갖고 있는 *pro*와 *vocare*가 결합된 단어로서, 이 경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차원에서 *inrito*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어 **מָרַח**(마라)의 의미를 잘 표출하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히브리어가 여러 다양한 문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는 히에로니무스의 어휘 선택의 섬세성과 치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절(PH)에서 히에로니무스는 **לְעוֹלָם**(르올람)을 *in perpetuum*으로 번역한다. 이것의 의미는 'forever'로서, 70인역(*εις αἰῶνα*)과 PG(*aeternum*)와 의미상 차이는 없으나, *perpetuus*가 가지고 있는 *continuity*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표현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 같다.

히에로니무스는 PH에서, **בְּתַשְׁבְּחָם**(베 타세크[접속사 + **שָׁכַח**의 Hiphil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 '가리우다, 덮다, 막다')를 *et proteges*로 번역하는데, 적절한 번역이다. PG는 70인역의 *κατασκηνώσεις ἐν αὐτοῖς* (*thou shalt dwell among them*)를 직역하여, *habitabis in eis*로 번역하고 있으나, 히브리어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경우 *Nova Vulgata*는 *obumbrabis eis* (*obumbo, 보호하다 비호하다, 감싸 주다*)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PH의 번역에 일치하는 것이다.

13절에서, 70인역의 번역인 PG는 히브리어 **רַצוֹן**(라쎌)을 *bonae voluntatis*라고 번역하는데, 히에로니무스는 **רַצוֹן**을 한 단어로 *placabilitatis* (온화, 은혜)라고 번역한다. 시의 단순성과 함축성을 살리며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전하려는 그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 5편 13b절(**כַּצְּנֶה רַצוֹן תַּעֲטֶרֶנּוּ**)을 70인역에서는 *ὡς ὄπλω εὐδοκίας ἐσ*

50) 프레드릭 휠록, 「휠록 라틴어 문법」(이 영근 역)(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5), 218-219쪽. 원제는 F. M. Wheelock, *Wheelock's Lati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0).

τεφάνοσας ἡμᾶς (thou hast compassed [or crowned] us as with a shield of favour)로 번역하고, PG는 이것을 직역하여 Domine ut scuto bonae voluntatis coronasti nos라고 번역한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כִּרְמָתְךָ의 대명사 접미어를 1인칭 복수로 이해하여 번역하고 있으나,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3인칭 단수로 이해한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는 이것을 70인역이나 PG와는 달리, 미완료로 번역한다(Domine ut scuto placabilitatis coronabis eum). 라틴어 coronare는 헬라어 στεφανῶω (to crown, surround; στεφάνη [crown, wreath, diadem])의 의미를 잘 살린 것이다(시 8: 5[6]; 65: 11[12]; 103: 4(כִּרְמָתְךָ crown, 시 21: 3[4])). 그리고 이것은 עָטָה의 Piel 2인칭 미완료 כִּרְמָתְךָ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⁵¹⁾ 한글개역, 개역개정판, 그리고 표준새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개역: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개역개정판: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표준새번역: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와 히에로니무스의 PH의 뉘앙스를 따라서, ‘은혜의 방패로 그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 또는 ‘은혜의 방패로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가 반영되도록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히에로니무스는 그의 시편 번역에 있어서 우선 그의 번역 의도대로 본문에 충실하려 하였다. 이미 시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는 시편의 번역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수사학적 특징까지 그의 번역에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히브리어 시의 문학적 우수성을 라틴어 성경에 표현하려 시도하였다. 본고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현대 성경 번역에서 유념해야 할 그의 번역의 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51) C. A. Briggs, 45쪽(cf. BHS apparatus criticus; BDB. 742-743쪽).

1. 어휘를 선택함에 있어서 문맥에 대한 세심한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행하였고(시 4: 2: 5: 2, 9, 11; cf. 시 1: 3, 5: 2: 1, 2: 3: 2), 시적 함축성을 반영하려 하였다(시 5: 2, 13; cf. 시 1: 3: 2: 4, 10).
2. 그는 히브리어의 고유한 의미론적 뉘앙스를 살리려 시도하였으며(시 4: 4: 5: 3, 5, 6, 9, 13; cf. 시 1: 1, 2: 2: 3, 10, 12),
3. 합성어와 같은 라틴어의 고유한 특징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시 4: 2; cf. 시 2: 2, 5: 3: 2).
4. 히브리 시의 구조적 특징(시 5: 2, 7)은 물론, 음성학적 특징까지 반영하려 하였으며(시 4: 3; 5: 5; cf. 시 1: 5, 6: 2: 2),
5.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좋은 번역일 경우 기존의 번역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로 새로운 표현의 도입을 통하여 새 번역으로서의 신선함을 주려 노력하였으며(시 4: 7, 9; 5: 5, 11), 폭넓은 창의적 표현을 보여주는 특징도 갖고 있다.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성경에 대한 연구는 히브리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 주석에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필요한 작업임을 보여준다.

4. 참고문헌

- 가톨릭대학교 고전 라틴어 연구소 편찬, 「라틴-한글 사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 박 철우, “시편 1-3의 본문분석을 통해 살펴본 불가타 번역의 특징,” 「성경원문연구」 (2009년 4월), 34-53쪽.
- 프레데릭 휠록, 「휠록 라틴어 문법」, (이영근 역)(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5), 원제 Wheelock, Frederic M. *Wheelock's Lati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0).
- Anderson, A. A., *The Book of Psalms*, (Grand Rapids: Eerdmans, 1972).
- Bauer/Arndt/Gingrich, *Th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 Brenton, Lancelot C. L.,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7th Zondervan printing 1980(orig. 1851), (Grand Rapids: Zondervan, 1980).
- Briggs, C. A., *The Book of Psalms*, vol. I(ICC), (Edinburgh: T&T Clark, 1906).

- Brown/Driver/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53).
- Dahood, M. J., *Psalms I: 1-50*, (New York: Doubleday, 1966).
- Estin, C., "Les traductions du Psautier," L. Fontaine/C. Pietri(eds.), *Le monde latin antique et la Bible*(Bible de tous les temps 2), (Paris, 1985), 67-88쪽.
- Kamesar, A., *Jerome, Greek Scholarship, and the Hebrew Bible: a study of the Quaestiones hebraicae in Genesim*, (Huddersfield: Charlesworth Group, 1993).
- _____, "The Virgin of Isaiah 7:14: the philological argument from the second to the fifth century", *JTS* (1990), 51-75쪽.
- Kelly, J. N. D., *Jerome, His Life, Writings, and Controvers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75).
- Koehler/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Study Edition, vol. I, (Leiden: Brill, 2001).
- Kraus, Hans-Joachim, *Psalmen 1-59, BK*, (Neukirchner Verlag, 1978)
- Natalizia, Rolando, Nihil-Roma-Maius, *Gramática latina y una síntesis gramática histórica del castellano*, (Asunción: Comuneros, 1977).
- Nautin, P., "Hieronymus",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Vol. 15, (Berlin: Walter de Gruyter, 1986), 304-315쪽.
- Negoitã A./Ringgren, H., "חָגָה hägä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I, 321-324쪽.
- Quirós, R., Manuel Antonio, *Latín hablado y latín clásico*, (San José: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4).
- _____, *El Latín y las lenguas romances*, (San José: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0).
- Glare, P. G. W.(ed.), *Oxford Latin Dictionary*,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Don Vincente García de Diego, *Diccionario ilustrado: Latino-Español, Español-Latino*, (Barcelona: Bibliograf, 1973).
- Biblia Sacra Vulga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5).
- Nova Vulgata Bibli Sacrorum*, (Vaticana: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86).

검색어

라틴 • 번역 • 불가타 • 시편 • 히에로니무스

투고일: 2009년 5월 8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Particularities of the Translation of Vulgate on the Basis of the Rhetorical Analysis of Ps 4-5

Park, Cheol-Woo, Ph.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Nazarene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articularities of Jerome's principles of the translation of Vulgate for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and its usefulness for the Biblical exegesis. This task has been tried in my previous article('Particularities of the Translation of Vulgate Considered on the Basis of Rhetorical Analysis of Psalms 1-3,' published in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April 2009, Korea Bible Society). The present article is intended to corroborate the thesis of that article. I tried to achieve it by observing the literary particularities of Jerome's translation(Ps 4-5), comparing it with the texts from MT, Septuagint, PG(Psalterium Gallicanum), PH(Psalterium iuxta Hebraeos), and Nova Vulgata.

Jerome tried to be faithful to the Hebrew text of the Psalms. He tried to represent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Hebrew text but also its literary particularities in his Latin translation. He attempted to express the literary excellency of the Hebrew Bible in his Latin Bible translation. The particularities of his translation which we have detected are as follows:

1. He shows a very careful analysis of the literary context for choosing the most appropriate word for it(Ps 4: 2; 5: 2, 9, 11; cf. Ps 1: 3, 5; 2: 1, 2; 3: 2).
2. He tried to express the semantic nuance of Hebrew words (Ps 4: 4; 5: 3, 5, 6, 9, 13; cf. Ps 1: 1, 2; 2: 3, 10, 12).
3. He used effectively Latin complex words for his translation (Ps 4: 2; 5: 11; cf. 2: 2, 5; 3: 2).
4. He tried to represent not only the structural particularities of Hebrew poetry (Ps 5: 2, 7), but also the phonetic ones (Ps 4: 3; 5: 5; cf. Ps 1: 5, 6; 2: 2).
5. He accepted the extant expressions whenever he thought them appropriate for their contexts. But he tried to give freshness to his translation by introducing new expressions, when he thought them appropriate (Ps 4: 7, 9; 5: 5, 11).

Such particularities of his translation remind us their importance for new Bible translations, and give us useful insights not only for the Bible translation but for Biblical exegesis.

Keywords

Jerome
Latin
Psalms
translation
Vulgate